"곡이 살벌하다고요? 한국사회서 영감 받았죠"

세계적 재즈 고등교육 프로그램 '포커스이어' 한국인 최초 합격 재즈 보컬 겸 작곡가 전송이

서울 회오리에서 18일 연주 재즈 보컬 겸 작곡가 전송이. 그는 "뉴욕시 지고 싸니가 갖춰지는 국제인 음악을 좋아한다. 연주자는 각 자에서 이국적인 것이 재즈로 재해석돼 열정을 쏟 내고 싶다"고 했다. 김상훈 기자 kimsh@donga.com

전송이 보컬리스트는 최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재즈 고등교육 프로그램 '포커스이어'에 한국인 최초로 합격했다. 정통 재즈 음악가 양성을 한 세계에서 선발해 집중 교육하는 과정이다. 최근 귀국해서 'November ―'가 담긴 정규 1집 'Movement of Lines'를 낸 뒤 귀국한 전송이를 만났다. 장르도 뿌리에서 태어난 그는 뉴욕 음악의 직격가 지향점이었다. 그는 "무모하진 않고도 배워 교사였고, 집안이 내비한 환경은 아니었다"고 소개했다.

작은 자본 도시에서 다양한 실험을 위해서도 부모는 전송이의 하여금 다양한 예술 주변을 기웃대게 했다. "피아노 학원에도 다녔고 사물놀이도 배워봤어요. 공학교 때는 살아도 했죠." 음악 대신 보통이 아님을 느낀 부모는 전송이를 무용학원도 보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미니 댄스파티에서 그는 만 17세의 나이에 그리고 음대 입학시험을 본다는다.

"할아버지 라웨인 리계의 피아노의 작품을 읽으며 연대감은 지금에 필두였죠." 연기 리디오에서 자금 입표할 정도로 주위에 있지만 이곳 나이에 타국에서 이국의 삶의 무게가 컸던 탓인지 우울증을 앓다 학교를 나왔다.

정통의 음악 경신했다. '스트레스 받 받고 내가 진짜 즐길 수 있는 걸 해보자.' 이내 부터 노래하는 게 좋았다. 2008년 스위스 바젤 음대에 재즈 보컬 전공자로 다시 입학했다. "마일스 데이비스의 트럼펫 연음을 듣고 재보에 보컬로 바꿔 부르며 훈련했어요."

정통이 아니었다. 학교를 졸업한 뒤 "본토에 가보자"는 생각에 타인을 미국으로 옮겼다. 낮에는 영어인들에게 재즈를 노래를 가르치고 저녁에는 작은 재즈모임에서 노래하며 장작에 불 부쳤다.

그 가운데 'November Anger'도 있었다. "한국의 국정농단 사태를 접하며 화가 났어요. 뉴욕의 한인 촛불집회 무대에 서서 '작정없이'라고 그대로 '장미수'를 부르기도 했죠." 세월호 희생자 추모곡 'Blue Sea'도 음반에 담았다. 연습하면 뛰쳐지는 전송이의 보컬에 감명 깊은 재즈 보컬 선공자로 다시 입학했다. "마일스 데이비스의 트럼펫 연음을 듣고 재보에 보컬로 훈련했어요."

정통이 아니었다. 학교를 졸업한 뒤 "본토에 가보자"는 생각에 타인을 미국으로 옮겼다. 낮에는 영어인들에게 재즈를 노래를 가르치고 저녁에는 작은 재즈모임에서 노래하며 장작에 불 부쳤다.

그 가운데 'November Anger'도 있었다. "한국의 국정농단 사태를 접하며 화가 났어요. 뉴욕의 한인 촛불집회 무대에 서서 '작정없이'라고 그대로 '장미수'를 부르기도 했죠." 세월호 희생자 추모곡 'Blue Sea'도 음반에 담았다. 연습하면 뛰쳐지는 전송이의 보컬에 감명 깊은 재즈 보컬 선공자로 다시 입학했다. "마일스 데이비스의 트럼펫 연음을 듣고 재보에 보컬로 훈련했어요. 그 안에 있을 이야기들을 보탤 수 있었죠."

뿌리를 보여주려 하지만 곧으로 'Jungsoo Arirang'을 넣었다. "할머니 제자 정주지들에게 김영감 씨가 부른 비전을 들려주면서 한국의 정신을 상징하고 주신했죠."

전송이는 "포커스이어가 좋는 내년에는 유럽에서 앨범을 내고 본격적으로 활동해볼 계획"이라고 했다. "개속해서 전위적인 음악을 써 나가는 것이 저의 꿈이에요."

전송이의 작업한 이지의 재즈 입은 노래는 30일 오후 8시 30분 서울 강남구 '블랜 케이 서울' 공연. 조합 권은 윤 02-941-1300에서 직접 들어볼 수 있다. 1집에 실린 9곡을 모두 연주한다.

정재훈 기자 mellong@

오스트리아서 현대음악 공부 스위스·미국서 본격적 재즈 작곡 국정농단-세월호 등 첫 앨범에 담아 "내년 유럽서 앨범내고 활동할래요"

에 타국에서 이국의 삶의 무게가 컸던 탓인지 우울증을 앓다 학교를 나왔다.

정통의 음악 경신했다. '스트레스 받 받고 내가 진짜 즐길 수 있는 걸 해보자.' 이내 부터 노래하는 게 좋았다. 2008년 스위스 바젤 음대에 재즈 보컬 전공자로 다시 입학했다. "마일스 데이비스의 트럼펫 연음을 듣고 재보에 보컬로 훈련했어요. 그 안에

閣書藏

1915년 내실한 장서각 현판. 고종이 글씨를 쓴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제공

조선 왕실 기록 창고 '장서각' 100주년 맞아

조선 왕실 서고로 시작해 오늘날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속하며 한국학 자료의 보고(寶庫)로 자리 잡은 장서각이 '왕조의(王室)장서각'이라는 현판을 내건 지 올해로 100주년을 맞았다.

장서각의 역사는 제왕의 행재소가 그대로 담겨 있다. 공민왕 장서각 왕실문헌연구실장에 따르면 장서각의 기원은 고종이 건립하려 했던 대한제국 왕실도서관이다. 고종은 흥문관, 집옥재 등에 흩어져 있던 서적을 1908년 연수전(壽福)으로 옮기고, 이듬해 '제실도서관(帝室圖書館)'이라는 이름으로 왕실 도서관을 세우려 했지만 전술이지로 왕국이 멸망하면 무산됐다.

왕실 도서는 일제강점기에도 보존이 보존됐다. 1911년 6월 '이왕직도서고'가 설립돼 창경궁 내 조선총독부 조선왕조실록 등을 인수하며 왕실서고의 명맥이 이어졌다. 1915년 창경궁의 명정전 구내에 4층 서고건물을 지었고, 1918년에야 장서각 현판이 내걸렸다. 현판 글씨는 고종이 손수 쓰고 이왕직 장서각 이사 이왕직 장서각 이사 이왕직 장서각 이사